



스위스재보험, 최신 시그마 연구에서 신흥시장 보험부문의 성장 및 이슬람 보험의 향후 전망 다뤄

Contact:

Patrizia Baur, Zurich
Telephone +41 43 285 3153

Clarence Wong, Hong Kong
Telephone +852 2582 5644

Kurt Karl,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564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2008년 12월 3일, 취리히 - 최근 발간된 시그마 연구에서 스위스재보험은 신흥시장 보험부문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이슬람권의 보험 형태인 타카풀(takaful) 시장의 성장을 집중 조명한다.

이번 시그마 보고서의 전반부는 신흥시장 보험업계의 최근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이슬람 율법학자들이 널리 수용한 개념인 상호 및 공동 위험부담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보장상품의 형태, 타카풀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신흥시장의 손해보험

2007년 신흥시장 손해보험 부문의 수입보험료는 미화 1,990억 달러로 11.6%의 실질성장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신흥시장은 동남아시아(+13%), 동유럽(+12%) 및 중동(+12%)이다. 이번 시그마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다니엘 스타이브(Daniel Staib)는 “견실한 경제상황 및 중동시장의 신규 의무보험 상품 도입이 손해보험 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스타이브는 “자동차보험과 재물보험은 2007년에도 신흥시장 손해보험 성장을 주도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보험 시장 전체 평균보다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흥시장의 생명보험

생명보험 시장은 2007년, 성장률이 종전 18%에서 14%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7년 수입보험료 규모는 미화 2,230억 달러이다. 이번 시그마 보고서의 또 다른 공동저자인 프루던스 호(Prudence Ho)는 “2007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증권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투자상품과 연계된 생명보험 상품 판매가 증가했다. 신상품 출시와 방카슈랑스의 시장점유율 증가 및 은행의 보험서비스 제공 역시 생명보험 부문 실적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신흥시장에서 생명보험 부문은 2006 년의 기록적인 성장률에서 약간 낮아진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57%)가 2007 년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인도의 경우 신규사업 성장률이 2006 년 145.7%에서 2007 년에는 불과 9.6%로 감소했다.

보험업계 동향과 신흥시장 전망

신흥시장 보험업계에서 최근 나타나는 동향 중 하나는 일부 규제당국이 보다 엄격한 자기자본비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눈에 띄는 동향은 저소득층도 부담 가능한 소액보험(microinsurance)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상품의 유통채널로서 방카슈랑스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선진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단기 경제전망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흥시장의 수출품에 대한 수요또한 감소할 전망이다. 소비재 가격 역시 큰 폭 하락했으며 이 같은 하락세는 앞으로도 이어져 물가상승률의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니엘 스타이브는 “2008 년과 2009 년에 신흥시장의 보험부문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이나 장기 성장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스타이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2008~2013 년에 보험부문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생명보험의 경우 2002~2007 년의 11.4%에서 7~10%로, 손해보험의 경우 같은 기간 10.6%에서 3~8%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슬람 보험 - 타카풀 시장의 성장이 해법이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에 부합하는 다양한 이슬람 보험 모델이 이슬람 국가에 도입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번 시그마 연구의 초점이 된 타카풀은 가장 많이 수용되고 있는 보험 모델이다.

타카풀은 상호(ta'awun)와 자발적 공여(tabarru)의 원칙을 근간으로 참여자들이 집단적, 자발적 방식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시스템이다. 자발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손실 유형을 명확하게 정의함에 따라 불확실성(gharar)이나 과도한 위험부담(maisir) 같은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된 요소들이 계약에서 제외된다.

타카풀 보험상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보험운영 및 샤리아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샤리아 감독위원회 창설
- 주주 자금과 보험계약자 자금의 분리
- 보험수익의 보험계약자 배분
- 샤리아에 부합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투자 회피

이슬람 보험 - 향후 전망

2004~2007년 기간에 타카풀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25%(인플레이션 감안 후)로 추정되는 반면 기존 보험시장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10.2%로 예상된다. 2007년 타카풀 수입보험료는 대략 미화 17억 달러 정도의 수준이나, 2015년 경에는 전세계 타카풀 시장 규모가 미화 7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전 세계 15억 이슬람 인구는 보험업계에 주요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시그마 연구에서는 바레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레이트, 다섯 개 시장에 대한 심층분석이 이루어졌다.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양대 타카풀 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말레이시아이다.

프루던스 호는 “이슬람 국가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동일한 담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카풀 보험이 판매되는 이상 전통적인 보험상품의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는 데에 이슬람 율법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타카풀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세계적, 지역적 또는 각 국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보험사들이 최근 5년간 타카풀 사업부문을 신설했으며 타카풀 재보험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타카풀 시장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관련 다니엘 스타이브는 “타카풀이 성공을 거두려면 보험 및 샤리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이슬람 율법학자 및 대규모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타이브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타카풀 운영 모델 및 규제 표준화가 더욱 진척되어야 하며 타카풀 상품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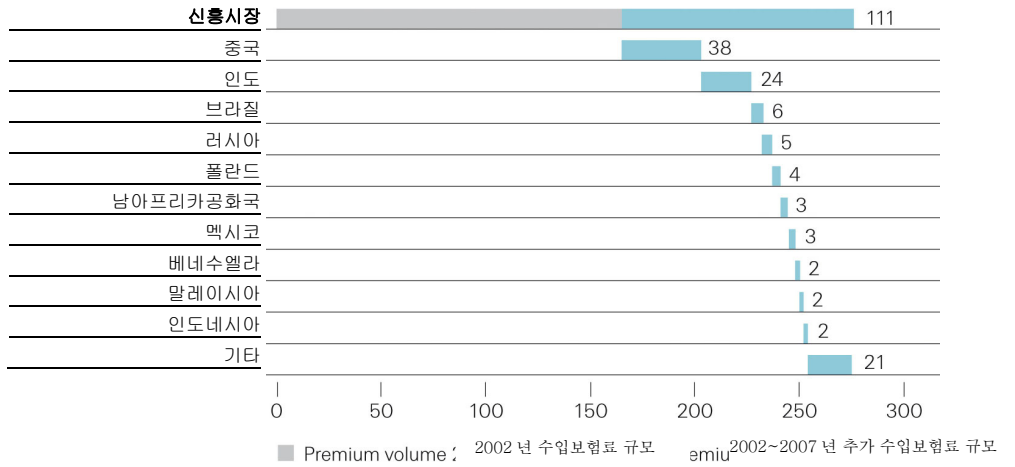
보험사가 규제당국의 지원 하에 이러한 도전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한다면 전세계 타카풀 업계는 시장 잠재력을 100% 발휘하여 종교와 무관하게 세계 전역에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데에 다니엘 스타이브와 프루던스 호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부문 10 대 신흥시장

생명보험	2007 년 수입보험료 (미화 백만 달러 기준)	신흥시장 시장점유율	손해보험	2007 년 수입보험료 (미화 백만 달러 기준)	신흥시장 시장점유율
중국	58 673	26.4%	중국	33 810	17.0%
인도	51 322	23.0%	러시아	28 973	14.6%
남아프리카공화국	34 430	15.5%	브라질	20 501	10.3%
브라질	18 533	8.3%	멕시코	9 763	4.9%
폴란드	7 950	3.6%	남아프	8 345	4.2%
멕시코	7 653	3.4%	폴란드	7 677	3.9%
말레이시아	5 573	2.5%	인도	7 402	3.7%
인도네시아	4 728	2.1%	터키	7 201	3.6%
태국	4 521	2.0%	베네수	6 977	3.5%
칠레	3 792	1.7%	아르헨	4 471	2.2%
상위 10 개국	197 177	88.6%	상위	129 619	68.0%

출처: 각국 보험당국, 스위스재보험 경제연구/컨설팅 부서

2003~2007 년 신흥시장 수입보험료 성장률 기여도 (2002 년 실질물가 기준)



편집자 주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세계 최대의 다각화된 글로벌 재보험사 중 하나로 전세계 25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쾰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A-' 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a2' 를,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 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913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 2006년 스위스재보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지 50년을 맞이했다.